



발행인 류광수 | 편집책임 차동호 | 편집위원 정현국, 장일영, 김유순, 차동호 | 통권 제 288호 | 발행처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 2동 534-3번지 선교빌딩 | 홈페이지 www.wedarak.net | 신앙 상담 (02)3663-7567, 7587 | 상담 시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 행복한 선물

##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분의 글에 “그물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때론 그 자유로움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한 젊은이의 뒤늦은 눈물의 고백, 진정한 자유로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노점상을 하셨다. 나물 같은 것들을 닦치는 대로 캐다 파셨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조차도 정말 창피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운동회 날이었다. 그날따라 엄마가 학교에 오셨다.

나는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라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 엄마는 눈도 없는 병신이래요.”라며 놀려댔다.

나는 놀림거리가 되던 엄마가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했다.

「엄마! 엄마는 왜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 해 죽겠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엄마께 미안하긴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나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졌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혼내지 않았기에 그다지 마음 상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했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갔다. 거기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

나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은 듯 외면했지만, 낮에 쏘아붙인 말 때문에 조금은 미안했다.

하지만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 모습은 정말 싫었다.

나는 이다음에 커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가난한 환경도 싫고, 한쪽 눈이 없는 엄마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고 열악한 내 환경이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했다.

그 후, 엄마를 떠나 서울로 올라와 더 공부했고, 당당히 서울대에 합격하였다.

세월이 흘러서... 나는 결혼을 하고, 집과 아이도 생겼다. 나, 아내, 그리고 아이... 셋이서 단란하고 행복했다.

가정을 꾸리고 엄마의 존재를 잊어버리니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집에 찾아왔다.

「누구세요?」

「...」

그건 우리 엄마였다.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흉하게 서 있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순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해 버렸다.

그때, 아이가 무섭다며 울었다. 나는 누가 남의 집에 와서 애를 울리느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

얼마 후, 나는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동창회에 가려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 집에 들렀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쓰러진 엄마의 모습에도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이제는 서울에 안 갈게...」

그래도 네가 가끔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어머니 곁에는 편지가 떨어져 있었다.

「엄마는 네가 동창회를 하러 올 거라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넌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다. 어미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네가 너무 기뻐했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구나! 네가 가끔 엄마한테 짜증을 낸 건 맘 편히 기댈 수 있어 그런 거로 생각했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어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돼... 절대로 울지 마!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통증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눈물이 솟구쳤다.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왜 그동안 말해 주지 않았어?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 드리고... 좋은 것도 대접하지 못하고 잘 입혀 드리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병신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병신이라는 걸 이제야 안, 이 못난 놈을 부디 용서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진정한 자유함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이가 행복과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그 어떤 운명, 팔자,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작은 이렇습니다.

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③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 고통이 실재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④ 결국,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분향**천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⑦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원래 인간이 누렸던 인생의 행복,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로마서 8:1-2

# “행복을 낳는 장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집이 있다고 모두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도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해체되는 가정, 아예 가정조차 이루지 못하는 싱글족의 급증...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허무와 공허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바닷물만큼의 이성보다 한 방울의 사랑이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가는 인생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멀리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9-12**

인간과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이런 축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첫째, 가정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창세기 2:23** 가정은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이 넘치는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창세기 1:31** 가정은 또 다른 행복과 생명, 번성과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희망 발전소입니다.**창세기 1:28** 둘째, 부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창세기 1:27-28** 그리고 부부에게는 서로 돕는 배필의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창세기 2:28** 그래서 부부는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내 인생의 반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축복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창세기 2:24** 아내에게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에베소서 5:22** 남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에베소서 5:25** 부부는 한 몸이기에 촛수**寸數**가 없습니다. 셋째, 자녀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미래요, 축복입니다.**시편 127:3-5**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통하여 성공자의 삶과 발판을 준비하고,**골로새서 3:20**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에베소서 6:1-3**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런 축복을 응답받는 행복 발전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자도, 범죄자도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원래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에텐동산입니다.

##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접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나의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하나님 자녀의 매일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삶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현장과 가는 걸음마다 복음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 어떤 문제든지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탐정 셜록 홈즈〉를 만든 코난 도일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자 영혼과 교류하는 비술인 ‘교령술’에 깊이 심취하였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국 뉴욕의 911 테러 사건은 영화보다 참혹하고, 소설보다 정교하였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의 미디어는 존 레논의 노래 ‘이미진’ Imagine의 방송을 자제하였다. 그 노래는 인기 있는 것이었지만 「천국도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자」라는 가사의 내용이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종교의 거두인 공자와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도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가지<sup>已知</sup>의 세계와, 모르는 ‘미지<sup>未知</sup>의 세계가 있고 미지의 세계는 언젠가 알게 되는 ‘가지<sup>可知</sup>의 세계와, 영원히 모르고 알 수도 없는 ‘불가지<sup>不可知</sup>의 세계가 있다. 종교의 창시자들조차도 사실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이성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불가지의 상황을 아는 척할 수 없었으니 그 솔직함에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존경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난다. 만남의 행복은 잠시이고 헤어짐의 시간은 길기에 이 존재의 사실을 길이 붙들어 두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종교를 만들었고 그 사후 세계인 저승의 가치를 증대시켜왔다. 그러나 종교의 큰 남자들은 그렇게 인간의 시간을 이해하지 않았다. 옛날 중국인은 자신들의 이승이 일회성임을 사실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사후세계인 저승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현대의 과학자들도 저승에 대한 견해에서 「인간의 육체는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 사망하고 그 원자가 풀어져 물과 대기 속으로 흩어지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물질이 없는데 인

간의 마음이 남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빌려 저승의 모르는 세계를 만들어냈다. 결국, 이승의 약자들이 저승에서 강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만들어 내므로 모르는 세계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 공자는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그를 멀리하라」라고 하였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에 공자는 최선의 지혜를 찾은 것이다.

민족명절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한 관습에 따라 무조건 제례를 갖춘다. 조상이 귀신이 된 것도 아니고 저승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가지의 세계를 기지의 세계로 알고 막연하게 속은 채 살고 있다. 풍요로운 8월의 한가운대를 지나는 한가위에 비추이는 달빛 아래 춤추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잔치를 찾아야 한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고 그 속에 영혼이 있어 영적 존재이다. 이것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므로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인간이 만든 저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우리 조상을 평생 속인 귀신이 죽어서도 조상 흉내를 내는 것은 고대의 사람들조차도 무시했던 일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리는 기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무덤에 꽃을 드릴 때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쪽으로 꽃을 놓는 것은 그들이 저승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에 공경하는 것이다.

한번 간 길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이제 제대로 된 길 곧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즐거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현국 (복음 칼럼니스트)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연락주세요.